

“지속가능한 양곡정책 수립하라”

무주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폐 촉구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나라농가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식량안보 불안을 야기할 거라며 제도 시행을 즉시 철폐하고 쌀 산업정책을 새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 연간 41만8천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양곡정책은 농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제, 직불금 감액, 용수개발사업 평가시 실적 반영 등 여러 불이익을 줄 거라고 예고한 것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쌀 소비 촉진정책은 물론 대체작물 재배유도 방안도 미흡한 상태에서 기존의 쌀농사를 포기



무주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1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하고 “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담을 회피하고 자 벼 재배면적 감축이 미진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은영 위원장은 또한 “쌀 생산량 감축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정치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고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하는 행

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시 철폐 및 농민과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쌀 산업정책 마련 △생산량 감축이 아닌 쌀 소비촉진과 수급조절을 중심으로 한 근본대책 마련 △지자체와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 책임 전가 중단 및 국가차원의 지원 강화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유기질 비료·토양개량제 공급 박차

무주군, 6개 읍면 5천여농가 지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무주군이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에 나섰다. 무주군은 총사업비 25억 2천2백만 원을 투입해 6개 읍면 5천여 농가에 유기질 비료 1백만 3천여 포대와 토양개량제 6만 8천135포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협을 통해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질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을 지원한다. 등급에 따라 1포대(20kg)당 구입비 1천3

백 원~1천6백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지역 내 생산 제품은 3백 원을 추가 지원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를 통한 소득안정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유기질 비료 지원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땅을 살리고 무주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진안군과 부안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상호 기부를 이어가며 두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8일 진안군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은 단순한 행정 차원의 교류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1,100만원을 기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이번 부안군의 방문은 지난 2월 주영환 진안 부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이 부안군을 방문해 1,000만원을 상호 기부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기탁식을 마친 부안군 관계자들은 진안군 명인명품관광과 홍삼연구소 등 진안군의 주요 문화·관광시설을 방문하며 지역 자원의 활용 방안을 논의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상호기부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회적 나눔의 좋은 실천 사례”라며 상호기부에 참여한 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또 그는 “부안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상호 방문을 통해 진안군과 부안군은 단순한 기부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교류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27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진안군 민(民)·관(官)·공(公) 협의체’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강화 모색

민·관·공 협의체 회의 개최... 사업 현황 공유·방안 논의

진안군은 지난 27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진안군 민(民)·관(官)·공(公) 협의체’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진안지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진안군지부, 진안고원시장 상인회, 진안연장산단단지협의회, 홍산한방농공단지협의회, 진안군 농상공인연합회,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등 총 8개의 민간 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진안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하여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진안군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추가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별보증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시행 2주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별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신용 보증을 제공하고,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최대 5년간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 내 금융기관들이 융자금을 지원해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43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20억 원 규모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 중 17개 업체가 대출을 승인받아 총 6억7,500만원이 지원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별보증 지원 대상은 진안군 내에 사업장을 둔 업력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점지점(063-430-8403~5)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장수군이 군청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윤수성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실무 적용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례 및 예방방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 중요성 △기타 반부패 법령과 청렴실천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와 집중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윤리적 가치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 문화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5백 원 통학 택시’ 운행

무주군이 아간자율학습 후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27일부터 ‘5백 원 통학 택시’ 운행(사업비 도비 포함 2억여 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까지 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용 학생 신청을 받아 대상자 85명을 최종 확정(통학 거리 편도 2km 이상, 노선서비스 이용 불가 학생)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차량 이용 요금은 회당 5백 원이며 운행은 지역 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이 맡는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교통팀 김기범 팀장은 “거주지별로 노선을 편성하고 추천과 배정을 마치고 운행을 시작했다”라며 “학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행 기사 교육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 교통수단 운영 사업’을 통해 통학버스 1대와 통학 택시 35대를 운행했으며 상·하반기 총 191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소방서, 산불·들불 화재 예방 소방안전교육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들불 화재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장수군 7개 읍·면지역 마을이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이장단 소방안전교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며, 특히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경남 산청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육 내용으로는 △불철 산불·들불 예방 및 화재 시 대응요령 △농촌지역 주택화재 예방 및 주요 안전수칙 강조 교육 △마을 방송수신 활용 화재예방 홍보 방송 (불철 산불예방 및 들불화재 사례전파, 안전수칙 안내)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